



죽비와 목탁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문화포교에 관심 기울일 때

어린이·청소년 찬불가를 만들어 보급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2006년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으로 만들어진 <풍경소리 피아노 반주곡집 1.2.3>이 지난 3월 출판사 창고에서 퇴출당했기 때문. 큰 원을 세우고 만든 음성포교집이 찬밥 신세가 됐으니 담당자의 고충이 대략 짐작은 된다.

10주년 기념 반주곡집은 불자와 시민에게 보시를 하고도 500여 권이 재고로 남았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입점했지만 홍보나 판매가 전혀 안 됐다고 한다. 교계에서 찬불가 피아노 교본이 필요하던 열화와 같은 성원은 어디 갔을까?

이 뿐 아니다. '좋은 벗 풍경소리'가 매년 제작하는 어린이 찬불가 음반에 대한 조계종 포교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밑줄 때마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음반제작 한 번 할 때 마다 빚만 쌓여간다.

최근 포교의 극대화를 위해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적은 투자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포교다. 찬불가·템플스테이·에니메이션·영화를 비롯한 문화포교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김수환 추기경 선종 보도는 최소 50만에서 200만까지의 카탈릭 신도를 증

가시켰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알다시피 S통신사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에는 기독교 음악장르인 CCM이 독립장르로 나뉘어져 있을 정도로 개신교의 찬송가 등이 종교 음악시장에서 가지는 위치와 영향력은 막대하다.

토머스 데이브포트는 <관심의 경제학>에서 21세기 비즈니스 세계의 가장 희소하고 새로운 가치를 '관심'이라고 말했다. 자본과 노동력, 정보와 지식 등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데이브포트는 관심에 주목했다. 관심도 일방적인 관심은 안 된다. <관심의 경제학>이 주장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방법은 먼저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세계 초일류 기업들은 소비자가 관심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기 위해 개인화기술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외사람이나 짝사랑이 이뤄지지 않듯이 반쪽자리 관심은 무의미 하다. 관심이 곧 투자고 투자한 만큼의 결과는 당연한 인과법이다.

아쉬울 때 찾고 돌아서면 있는 관심은 관심이 아니다. 지속적인 애정 어린 대상의 요구를 헤아리는 관심이 절실한 때다.

###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창립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산하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가 창립했다.

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문화부장 수경)는 불교합창단의 전국적인 연대와 교류를 위해 5월 21~22일 전국불교합창단 임원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 중에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를 창립했다.

전국 합창단 단장 및 임원 1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대 회장에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김기련 회장이 추대됐다. 더불어 부회장으로 대전불교합창단연합회 김연희 회장, 전북불교연합창단 송영호 대표, 제주불교여성합창단 최정희 단장 3인이 추대됐다. (02)2011-1772

김성우 기자

## 자연공원법 개정안 '반대'

### 불교계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행렬 동참

자연공원 개발을 골자로 5월 1일 입법예고된 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불교계 입장발표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공청회를 열고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공동대표 심익섭)는 5월 20일 서울 로구 한국건강연대 3층 '지금여기'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불도저식 개정추진과 개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는 국립공원 제도 개선을 위해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등 17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 2000년 9월 발족한 정책개선 시민연대조직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계종 관계자들을 비롯한 100여명의 시민운동가들이 참석해 관심을 표했다.

심익섭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호를 주장하는 불교계와 생태 및 환경보호의 시

민단체가 이런 자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청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환경부에 대해 "청와대 방침 때문인지 환경부가 대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지는 못할망정, 참석조차 하지 않은 환경부는 '환경'이라는 명호를 때아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오구균 교수(호남대의 '5월 1일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의식' 주제발제를 통해 환경부의 케이블카 설치기준 완화와 따른 국립공원 훼손을 우려했다.

오 교수는 1980년대 전라북도 요청으로 무주리조트 등을 개발, 곤돌라와 골프장 등으로 생태, 환경파괴가 진행된 덕유산 사례를 들며 "10년동안 국립공원 보전을 포기해 온 환경부는 이제 개발부처가 돼 버렸다. 당시 레저스포츠 관광지로 전략

시켜 국립공원 가치를 상실한 댓가로 이를 추진한 공원관리청이 그 책임을 지고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전철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보다 먼저 현 자연공원관리 제도를 검토, 개발정책보다 보존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인 교수(부산대는 '우리나라 공원관리 현황과 자연공원법의 문제점'에서 "국립공원에서 40%에 이르는 사유지의 개발을 국립공원 틀로 규제해 온 정부가 오히려 개발에 나서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역사문화지구 구성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개정절차에 따르면 이번 자연공원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노덕환 기자**

### "불교임종의례·상례 포교에 도움"

#### 조계종 포교원 제32차 포교정책연찬회 열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동성)이 5월 21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2차 포교정책연찬회를 열고 '불교 임종의례와 상례 지침서의 방향'을 논의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충 스님은 격려사에서 "임종과 죽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 종교적 위안과 인식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준다"며 "불교계에서 불교 임종의례와 상례 지침서는 불교포교에 커다란 기여와 함께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인식을 심어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결연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시제학과)는 주제발표 '불교 임종의례의 정의와 내용'에서 표준 임종의례 지침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비탈자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 포교 전략적 의도

도 함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도마를 호스피스 원장 능행 스님은 "불교의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죽음은 '현실'임을 알고 임종의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해서 다양한 자료연구와 임상적인 접근을 토대로 의식집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순남숙 원장(한국생활문화연구원)은 "불교 상례의 의미와 절차"에서 △우리나라 유교식 전통상례 △의례준칙에서의 상례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불교상례 등을 설명했다.

조계종 기획실 기획국장 미등 스님은 "불교 상례는 의례와 교리의 합당성, 의례를 통한 신앙심 고취, 대중성과 신성성을 담보한 포교적 관점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불교 상례와 관련된 장례, 다비, 시디립 등의 정의 선결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상연 기자

### 국정 기조에 우려 표명

#### 지관 스님, 쇠신평위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스님은 5월 21일 한나라당 쇠신평위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위원들의 예방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서 스님은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지수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국정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자에 따르면, 지관 스님은 "경제와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다"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환경부 방침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관 스님은 한나라당 의원 방문 후 예방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4·29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에는 덕담을 아끼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조종섭 기자**

## 새 신도증 발급 1만명 훌쩍

### 조계종 포교원 21일 운영 시스템 시연

조계종 새 신도증 발급자가 발급 2개월 여 만에 1만3000명을 넘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충)은 5월 15일 새 신도증 발급자 1만명 돌파, 21일 새 신도증 운영 시스템 시연을 실시했다.

이날 시연회는 새 신도증 첫 발급자인 정정식(서울 구룡사 거사회)씨와 1만 번째 발급자인 김가옥(서울 잠실 불광사)씨가 조계사 산중다원과 불교용품점에서 새 신도증을 시연했다.

혜충 스님은 "기존 신도증이 신도들에게 미비한 혜택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새 신도증은 108가지의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포교, 수행, 사회 활동에도 이익을 주고자 했다"며 "조계종 신도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함께 활기찬 수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만 번째 주인공인 김가옥씨는 연꽃마을에서 10년째 봉사를 하고 있으며 예비 포교사 준비 중인 참불자다. 김씨는 "불자로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나에게 온

것은 앞으로 불법을 더욱 널리 홍보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이번 새 신도증 사업에서는 신도등록사업 전면 개편과 함께 '조계종 신도멤버십' 개념으로 전국 사찰을 포함한 제휴처에서 신도증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했다. 나이스정보통신주식회사(대표 안광조)와 공동 협력해 멤버십시스템과 단말기를 개발해 사찰이나 주변가맹점 등에서 신도증 사용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팀 황철기 팀장은 "새 신도증은 '수행과 생활공동체'를 지향, 종단 등록 신도의 신행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조계종 신도 주요 사찰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장 또는 불교용품점, 수행프로그램에서 7월부터 5~20%를 할인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관혼상제 등 신도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휴처를 확대해 조계종 신도로서의 권리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 부천스포피아 미납액 등 일단락

### 영담 스님 조계종 총무원에 납부

조계종 은행 계좌가 압류되는 사태 빚었던 부천스포피아 문제가 일단락 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대오)은 5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천스포피아 매각 이후 발생한 미납공과금과 이자 등 8400여 만원을 영담 스님(부천 석왕사 주지)이 총무원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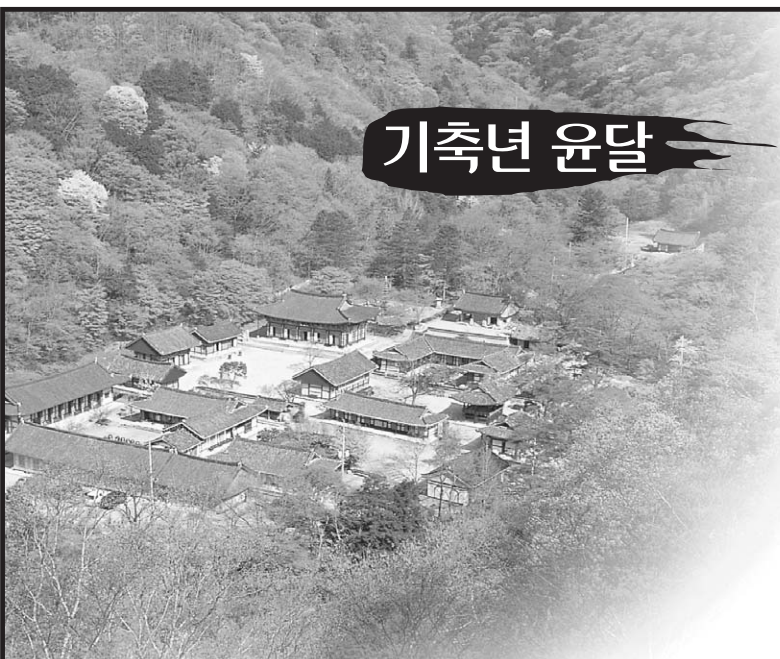
대오 스님은 "영담 스님이 원고측 변호사 수입료를 부담함은 물론, 부천스포피아 판결과 관련해 종단의 추가 소송 및 손해가 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고 서면 약정했다"며 "영담 스님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돼 있는 조계종유지재단 명의의 농협 통장에 대해 채권자들이 채권추심 포기 및 압류해제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한 상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복지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스포피아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계종유지재단이 1999년 수탁 받아 부천 석왕사가 운영 지원사찰로 지정돼 운영을 맡아 왔다. 2005년 9월 근로복지공단이 시설을 공개매각하면서 석왕사가 8~12월까지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을 미루면서 수탁자인 조계종유지재단 명의의 은행계좌가 압류됐다.

조종섭 기자



**기축년 윤달**

# 고불총림백양사 생전예수재 동참 안내

고불총림 백양사에서는 기축년 5월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진 빚, 즉 업을 죽기 전에 미리 잘 닦아서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죽음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행의식으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을 쌓기를 발원하는 천도재입니다.

예수재를 봉행하는 공덕은 동참하는 당사자만이 삼계 고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덕이 무량하여 그 이익이 자손만대에까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부디 불자님들께서는 이웃에게도 권선하시어 다 함께 무량 복락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 나무 대성인로왕보살 마하살 나무 유명교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 백양사 영각당(납골) 봉안 안내

백양사 영각(납골)당은 도량내에 위치하여 언제나 대덕큰스님들의 영불이 끊이지 않아 영가들에게는 극락으로 가는 반야용선의 역할을 하고, 살아있는 불자에게는 본래 청정심을 찾아가는 수행처로서 극락의 즐거움과 평안함을 마음에서 찾게 해주는 주모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축년 윤달을 맞아 백양사 영각당에 선망부모를 모시어 영가가 불법을 들어 마음 닦을 기회를 주고 유가족이 불보살님께 공덕을 쌓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가들을 극락으로 이끌어 줄 백양사 영각당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의\_ 백양사 영각당 061)392-7320

### ■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입재 5월 28일 (음, 5월 5일) 목요일 10시	초재 6월 3일 (음, 5월 11일) 수요일 10시
2재 6월 10일 (음, 5월 18일) 수요일 10시	3재 6월 17일 (음, 5월 25일) 수요일 10시
4재 6월 24일 (음, 5월 22일) 수요일 10시	5재 7월 1일 (음, 5월 9일) 수요일 10시
6재 7월 8일 (음, 5월 16일) 수요일 10시	회향 7월 15일 (음, 5월 23일) 수요일 10시

• 동참금 \_ 개인 30,000원, 가족 100,000원 • 접수처 \_ 백양사 종무소 (061-392-7502)  
 • 입금계좌 \_ 농협645117-51-010764 백양사(입금 후 확인전화 요망)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雲寺**